

발해도성과 고구려 후기도성의 성문형식에 대하여

Study on style of the gate of Balhae's capital cities and Koguryo's capital cities of the latter period

정석배(한국전통문화대학교)

JUNG SUKBA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I. 머리말

발해(698~926년)에는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으로 불린 5경이 있었다. 상경은 영안시의 상경용천부유적, 중경은 화룡의 서고성, 동경은 훈춘의 팔련성, 남경은 북청의 청해토성으로 각각 구체적으로 비정되고 있으며, 서경은 압록강 북안의 임강진 지역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성문을 비롯한 문지에 대한 발굴조사내용은 현재로서는 상경, 중경, 동경유적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지금의 환인지역에 위치하는 흘승골성에 도읍을 정하였다. 흘승골성은 지금의 오녀산성으로, 이때의 평지도성은 하고성자성 혹은 나함성으로 각각 추정된다. 유리왕 22년(서기 3년)에는 지금의 집안지역에 위치하는 국내 혹은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집안지역으로의 천도 이후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 산상왕 13년(209)에는 환도로, 동천왕 21년(247)에는 평양성으로, 고국원왕 12년(342)에는 환도로, 13년(343)에는 평양 동항성으로 몇 차례 도성이 변천을 겪었다. 이때의 국내, 국내성은 지금의 국내성으로, 환도 혹은 환도성은 지금의 환도산성(산성자산성)으로 각각 여겨지고 있다. 이 시기의 평양성에 대해서는 여러 이설이 있다. 이후 장수왕 15년(427)에는 지금의 평양지역으로 천도하였고, 평원왕 28년(586년)에는 장안성으로 다시 도성을 옮겼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지역의 도성은 안학궁성 혹은 청암리토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원왕이 천도한 장안성은 지금의 평양성이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은 문헌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증되고 있다. 고고학적인 자료는 발해에서 고구려 계통의 구들, 석실무덤, 연화문와당과 모골기와, 회색 윤제 토기, 철제 찰갑과 살촉 등의 무기류, 농기구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발해 상경성 궁성의 평면구조와 체계가 고구려 안학궁성을 빼닮았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져 있다. 이 글에서는 발해도성과 고구려 후기도성인 안학궁성 및 평양성(장안성)의 성문형식을 비교하여 발해와 고구려의 계승문제를 검토해보

고자 한다.

Ⅱ. 발해도성과 고구려 후기도성의 성문현황

1. 발해도성의 성문

(1) 상경성(上京城)

상경성은 외성, 내성, 궁성의 3중성이며, 외성에는 모두 10개의 기본 성문과 그 외 보조 성문이 있었다. 외성 성문에서는 남벽의 정문과 동문, 북벽의 중문과 11호 문지가 각각 발굴되었다. 그 외에도 외성의 몇몇 성문이 일제강점기 때에 조사되었으나 보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내성은 황성 남벽 정문이 조사되었다. 궁성에는 남벽과 북벽에 각각 3개의 1개의 성문이 있지만, '가문지'도 있어 양상이 상당히 복잡하다. 남벽 정문 '오봉루'와 그 좌측의 문지, 그리고 북문지가 조사되었다.

외성 남벽의 정문(정남문)지는 문돈(門墩) 측문+연결 벽(隔牆)+문돈 중문(中門)+연결 벽+문돈 측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운데 문돈 중문은 전체 길이가 26.6m이며, 각 문돈의 크기는 남북 11.6m, 동서 11.1m, 잔존 높이 0.4m이다. 중문의 좌우 문돈 위에는 3×3=9개씩의 기둥구멍과 작은 보조기둥구멍들이 확인되었다. 외성 남벽 정문의 동서 전체 길이는 57.5m이다.

외성 남벽의 동문지는 문돈+문길+문돈 구조이다. 전체 길이는 12.3m이다. 서쪽 문돈의 서쪽 부분에서는 남북으로 4개의 초석이 2.1m, 1.7m, 2.1m의 간격으로 확인되었는데 문돈의 잔존 높이는 0.3~0.4m이다. 대부분의 초석에 나무기둥이 불타고 남은 재가 남아 있었다.

외성 북벽의 중문(정북문)지는 문돈 측문+연결 벽+누문기단+연결 벽+문돈 측문의 구조이다. 동서 전체 길이 52.12m이고, 남북 최대 너비 30.8m이다. 가운데 누문의 기단은 높이가 0.75m, 동서 길이가 21.9~22.6m, 남북 너비가 18.4m이며, 북쪽과 남쪽에 각각 비탈길(斜道)이 시설되어 있다. 기단 위에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초석이 남아있다. 문돈은 잔존 높이가 약 0.8m이며, 문길의 너비는 약 5.2m이다.

외성 북벽의 11호 문지는 두 번에 걸쳐 축조되었다. 이른 단계와 늦은 단계 모두 문돈+문길+문돈의 문돈문 구조이다. 이른 단계에는 문돈의 크기가 남북 약 6m, 동서 약 3.5m, 잔존 높이 약 1m였다. 이른 단계 11호 문지의 서쪽 문돈에는 남북 양쪽에 각각 동서 방향으로 배치된 나무기둥 흔적이 발견되었다. 늦은 단계의 문돈에서도 나무기둥의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내성의 황성 남벽 정문(남문)지는 누문기단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의 동서 길이는 30m, 남북 너비는 11.35m, 높이는 0.65m이다. 기단 위에서 정면 7칸, 측면 2칸의 초석이 확인되었고, 3개의 문길 사이에 각각 동서 방향으로 격장이 있다. 문길은 모두 비탈길과 연결된다.

궁성에는 남벽과 북벽에 각각 3개와 1개의 성문이 있었다. 궁성 남벽의 정문은 '오봉루(五鳳樓)'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 서쪽의 것은 3호 문지, 그 동쪽의 것은 4호 문지로 각각 불리기도 하였으나 남벽 동쪽 4호 문지는 실제로는 문의 외부시설은 있지만 문길이 없는 가문지(假門址)였다.

궁성 남벽 정문(정남문)은 문돈문+누각기단+문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운데 누각기단은 동서 길이 42m, 남북 너비 26m, 높이 약 5.2m이며, 기초의 깊이가 1.3~1.5m이다. 기단 위에는 정면 9칸, 측면 6칸의 초석이 남아있다. 양쪽의 문돈에는 깊이 3.8m의 기둥 구멍이 3개씩 문길을 사이에 두고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궁성 남벽 서문(3호문)지는 문돈+문길+문돈의 구조를 가진 문돈문이다. 문돈의 잔존 높이는 약 3.1m이고, 동쪽 문돈의 경우 크기가 남북 약 7.55m, 동서 약 4.15m이다. 가운데 문길은 너비가 약 4.55m이다.

궁성 북문지는 2개의 문길이 있는 문돈+문길+격벽+문길+문돈의 구조이다. 규모는 동서 약 20.8m, 남북 약 6.7m이며, 문돈의 잔존 높이는 0.5~1.5m이다. 문길의 너비는 양쪽 모두 약 4.1m이다. 바닥에는 판돌을 깔았고, 각 문길의 가장자리에는 문지도리(門樞)와 문지방(門檻) 등의 흔적이 있다.

그 외 상경성에서는 5호 궁전 앞의 격장문지와 2호 궁전 좌우의 동액문지 및 서액문지도 조사되었는데, 모두 장방형 배치구도를 보이는 4개의 초석과 가운데 2개의 문설주(門柱) 초석(礎石)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기단이 있는 사주문(四柱門)이다.

(2) 서고성(西古城)

중경성인 서고성은 외성과 내성의 2중성 구조이다. 외성에는 각 벽에 1개씩 4개의 성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고성에서는 외성의 남문과 북문, 그리고 내성의 남문과 북쪽 격장문지가 각각 발굴되었다.

외성 남문지는 문길과 그 좌우의 문돈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길은 길이 약 8.4m, 너비 약 3.36m이다. 문돈은 기초 구덩이를 파고 그 안을 강돌과 흙을 차례로 다져 쌓아 기초를 구성하였다. 문돈의 길이는 문길과 동일하고 너비는 서쪽 문돈의 경우 약

4.36~4.68m이다.

외성 북문지는 훼손이 매우 심각하며, 문지 기초구덩이(基槽)만 확인되었다. 기초구덩이는 평면상 '十'자 모양이고, 크기는 남북 길이 5.45m, 동서 너비 5.5m이며, 깊이는 0.65~0.75m이다. 기초구덩이의 내부도 훼손이 심각하였는데 강돌과 흙을 차례로 다짐하여 쌓았다. 기초구덩이의 북변과 남변이 성벽과 동일선상에 위치한다.

내성 남문지도 훼손이 심각하였지만 기단과 지면 아래의 기초구덩이는 확인되었다. 다짐(夯土)으로 조성한 문지 기단은 평면상 횡장방형이며, 가장자리 선은 동북 모서리 부분에만 잔존하였다. 기단의 동서 길이는 약 26.4m, 남북 너비는 약 16.5m, 잔존 높이는 0.1~0.5m이다. 기단의 가운데에는 남쪽과 북쪽에 각각 통로(踏步)가 시설되어 있다. 기단 위에서 초석이나 적심은 확인되지 못하였다. 기초구덩이는 3줄로 되어 있었다. 문지 기단의 북변과 남변이 성벽 선보다 밖으로 훨씬 돌출되어 있다.

내성 격장문지는 동서 너비 약 7.3m, 남북 길이 약 9.8m의 다짐기단 위에 조성하였다. 기단 위에 남북방향으로 3개씩 2열의 초석이 남아있는데, 가운데 2개는 문설주 초석일 것이다.

(3) 팔련성(八連城)

동경성인 팔련성도 외성과 내성이 있는 2중성 구조이다. 외성 남문지와 내성 남문지가 조사되었다.

외성 남문지는 문길이 하나이며 크기는 동서 너비 약 3.2m, 남북 길이 약 5.2m이다. 문길 좌우 가장자리에는 돌을 깔은 것이 남아있는데 이웃하는 좌우 성벽의 석축 마감으로 판단되었다. 문길의 양쪽 가장자리 및 이웃하는 좌우 성벽의 위에는 동일 간격으로 모두 8개의 둥근 경토(硬土)자리가 있다. 이 경토자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구조를 이루며 성문의 목조결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문길의 가운데 좌우에 있는 잔돌로 된 열은 기둥을 세운 자리로 판단되었는데 아마도 문설주 초석이 위치하였던 장소일 것이다.

내성 남문지는 기단과 그 위의 적심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의 크기는 동서 27.4~28.6m, 남북 16.2m이며, 잔존 높이는 0.6~0.8m이다. 기단 위에는 적심들이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남아있다. 문길은 3개이며, 기단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3개씩의 통로 흔적이 남아있다. 기단의 남쪽과 북쪽에서 다량의 기와가 확인되었다.

2. 고구려 후기도성의 성문

(1) 안학궁성

안학궁성에는 남벽에 3개, 북벽, 동벽, 서벽에 각각 1개씩 모두 6개의 성문이 있었다. 6개 성문지 모두에 기초가 남아있었다. 성문의 기초형식은 원형기초, 연결기초, 원형연결결합형 기초로 구분되었다. 원형기초가 4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남벽의 3개 문지(남문, 남동문, 남서문)와 동벽의 문지(동문)가 이에 해당된다. 연결기초는 북벽의 문지(북문)에서, 원형연결결합형 기초는 서벽의 문지(서문)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원형기초를 한 4개 성문지에서는 원형기초가 모두 측면 2칸이었다. 정면의 칸 수는 차이가 나는데 남문은 정면 7칸, 남동문은 정면 7칸, 남서문은 정면 6칸, 동문은 정면 5칸으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원형기초를 한 성문의 규모는 남문이 길이 37.5m, 너비 10m, 남동문이 길이 40.6m, 너비 11m, 남서문이 길이 28.7m, 너비 9.1m, 동문이 길이 23.3m, 너비 8.6m이다. 규모가 가장 큰 성문이 남벽의 가운데 위치하는 남문이 아니라 그 동쪽에 위치하는 남동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원형기초의 직경은 2.6~3.5m 사이이다.

북문은 4개의 연결기초로 되어 있다. 그런데 돌로 쌓아 만든 이 연결기초들은 길이는 13m로 모두 동일하나 너비는 가운데 2개는 3.2m로 상대적으로 좁고, 좌우의 2개는 너비 5m로 상대적으로 넓다. 문길은 3개가 있었다. 북문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7m, 너비 9m이며, 기초의 깊이는 1.2m이다.

원형연결결합형 기초를 가진 서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되어 있다. 규모는 길이 21.6m, 너비 8.6m이다. 기초의 구조를 보면 좌우 양쪽에는 연결기초로 되어 있고, (앞에서 보았을 때에) 가운데 2줄은 원형기초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결기초가 성벽과 직교하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가운데 2줄 원형기초 사이의 간격은 6m이고, 좌우 연결기초와 원형기초 사이의 간격은 4.3m이다. 기초의 깊이는 0.6~0.8m이다. 기초의 크기는 원형기초가 직경 3m, 연결기초가 길이 7m, 너비 3m이다.

(2) 평양성(장안성)

평양성은 내성, 북성, 중성, 외성의 4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성에는 거피문(남문), 다경문(=양명문)(서문), 선요문(북문), 고리문(동문)이 있었다. 중성에는 정양문(정남문), 함구문(동남문), 보통문(서문), 육로문(동문), 경창문(북문)이 있었다. 내성, 즉 궁성에는 대동문(동벽 남문), 칠성문(북문), 정해문(서문), 주작문(남문), 장경문(동벽 북문), 동암문(동벽 북쪽, 북성으로 통하는 비밀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이 있었다. 북성에는 전금문(남문)

과 현무문(북문) 그리고 암문이 하나 있었다.

이 성문들의 이름은 고구려 때부터 전해져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하지는 못하다.

평양성의 성문구조는 분명하지가 못하는데, 그것은 관련 자료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외성 북문인 선요문에서는 수많은 고구려 기와조각과 막새가 깔려 있었다.

중성 정남문인 정양문 자리에서는 “문다락 건물에 쓰였던 고구려 때의 주춧돌이 발견되었다”.

중성의 서문인 보통문에서는 주춧돌과 축대의 성돌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보통문과 관련하여 “1962년에 보통문을 본래의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 55미터 떨어진 지금 위치에 옮겨지을 때 드러낸 홍예석 밑에 가로놓인 기초 장대석들이 칠성문 이북의 성벽 기초돌들과 같은 방법으로 다듬은 고구려 성돌이었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 사실은 보통문 자리에서 고구려의 것인지가 분명하지 못한 홍예석과 고구려의 것이 분명한 기초 장대석들이 확인되었음을 말해 준다.

내성의 암문인 동암문과 관련해서는 “무지개형으로 열린 동암문 축대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였다.

내성의 대동문과 관련해서는 “대동문 다락건물에 쓰인 주춧돌과 축대에 쓰인 성돌 가운데 고구려 때의 것이 있으며, 문 밑에 수많은 고구려 기와조각이 깔려져 있었다는 사실과 특히는 1959년 대동강 호안 정리 때에 대동문 홍예문 앞 약 12.5미터 위치에서 웅성을 쌓았던 흔적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쓰인 돌들이 모두 고구려 평양성의 성돌과 꼭 같은 것이었다”라고 언급하였다.

내성의 서문은 정해문과 관련해서는 “이 문자리에서는 고구려 때의 주춧돌과 수많은 고구려 기와조각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성문은 요충지에 배치하였고, “좌우 성벽을 휘여 안으로 들여 놓거나 석벽을 꺾어 그 사이에 설치함으로써 적이 공격하는 데는 매우 힘들며 반대로 적을 맞아치는 데는 아주 편리한 배치형식을 취하였다”.

웅성은 두 가지의 형식이 구분되었다. 평지에 위치하는 대동문, 보통문, 경창문 등에는 웅성이 성문 앞을 돌려 막아 쌓은 것으로서, 문 앞을 반달형으로 막아 쌓은 것인데 고구려 평양성 때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는 웅성벽 밑에 쓰인 돌이 고구려 성돌이고, 이전 단계의 국내성과 산성자산성에 이미 이 형식의 웅성이 있었고, “평양성 성곽도”에 반달형 웅성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산지대에 위치하는 현무문, 칠성문 등의 웅성은 성문 앞을 막지 않고 좌우 성벽을 좁혀

옹성벽을 겸하게 한 것이다. “칠성문은 북에서 남으로 나오는 성벽을 밖으로 직각으로 꺾어 엇물리게 하고 그 사이에 성문을 내었다. 이 문의 옹성구조는 우측(동쪽)은 원성벽 밑에 좁은 평벽을 덧붙이고 좌측(서쪽)에는 마치 독을 뒤집어놓은 모양으로 홍예문에서 약 5.6미터 돌출시켜 옹벽을 쌓아 문밖의 폭을 3.8미터로 좁히고 그 위에 숨어서 쓰기 편리하도록 성가퀴(녀장)를 쌓았다”. 구릉지대에 배치된 정해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의 옹성이 확인된다.

그 외 평양성에는 수문도 있었다. 궁성에서 동쪽 대동강으로 통하는 동수구문, 외성 서문(다경문)을 지나는 남수구문, 중성에서 서쪽 보통강으로 통하는 서구수문 등이 알려져 있다.

Ⅲ. 발해도성과 고구려 후기도성의 성문형식 비교

일반적으로 성문은 문의 위치에 따라 평문(平門)과 현문(懸門)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발해도성에서는 이에 더하여 단문(壇門) 혹은 기단문(基壇門)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발해도성에서는 기단 위로 낸 건물 사이로 문길이 나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문이 배치된 위치로 볼 때에 현재 발해 도성에서는 평문과 기단문 형식이 보인다.

발해의 성문구조물은 성벽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볼 때에 양면돌출형식(兩面突出形式), 동일선상형식(同一線上形式), 어긋형식(交差形式), 옹성형식(甕城形式)으로 각각 구분된다. 하지만 발해의 도성에서는 어긋형식과 옹성형식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고, 모두 양면돌출형식이나 동일선상형식이다. 양면돌출형식과 동일선상형식 성문은 문돈(門墩), 문길(門道), 격벽(隔壁), 연결 벽(隔牆), 누문기단(樓門基壇), 혹은 누각기단(樓閣基壇)이라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문돈이 있는 성문은 문돈+문길+문돈 혹은 문돈+문길+격벽+문길+문돈 이라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첫 번째의 것은 문길이 1개, 두 번째의 것은 문길이 2개이다. 문돈이 있는 성문은 문돈문(門墩門)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나, 좌우의 문돈 위를 서로 연결하여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누각을 세운 구조이기 때문에 초루식(哨樓式)으로 복원된다. 따라서 문돈문은 초루식성문(哨樓式城門) 혹은 문돈을 강조하여 문돈초루식성문(門墩哨樓式城門)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누문기단은 누문을 세운 기단이다. 누문은 문길의 바닥 혹은 기단 위에 정면이 다칸(多間)인 건물을 세우고 그 사이로 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낸 성문을 말한다. 누문이 있

는 성문은 누문식(樓門式) 성문으로 부른다.

발해도성에서는 문돈문만 있는 문돈문식(門墩門式), 3개의 문돈문이 연결 벽을 사이에 두고 중복되는 문돈문중복식(門墩門重複式), 문돈문이 연결 벽을 사이에 두고 누문기단과 결합된 문돈문누문결합식(門墩門樓閣基壇結合式), 문돈문이 연결 벽 없이 누각기단과 결합된 문돈문누각(기단)결합식(門墩門樓閣基壇結合式), 누문기단만 있는 누문식(樓門式), 문길사이와 성벽 위에 각각 기둥자리가 있는 누문절충식(樓門折衷式)의 성문이 각각 구분된다.

문돈문식 성문 중에서 문길이 2개인 것은 상경성 궁성 북문지가 유일하다. 문길이 1개인 것은 상경성 외성 남벽 동문지, 외성 북벽 11호문지, 궁성 남벽 3호문지, 그리고 서고성 외성 남문지에서 각각 확인된다. 모두 초루식의 누각이 1채 있는 성문으로 복원될 것이다.

문돈문중복식 성문구조는 상경성 외성 남벽 정문에서 찾을 수 있다. 각 문돈문에 1개씩의 문길이 있어 모두 3개의 문길을 가지며, 가운데 문돈문은 좌우의 것에 비해 규모가 크고 내.외측으로 보다 돌출하였다. 삼문일체형(三門一體形)으로서 초루식 성문이 3개 나란히 배치된 성문구조이다.

문돈문누문결합식 성문은 상경성 외성 북벽 중문지에서 확인된다. 문길이 3개인데 좌우의 문돈문과 가운데 정면 5칸, 측면 4칸의 초석이 있는 누문기단의 사이로 각각 1개씩의 문길이 있다. 초루식성문+누문식성문+초루식성문으로 된 삼문일체형(三門一體形) 성문구조이다.

문돈문누각(기단)결합식 성문은 상경성 궁성 남벽 정문에서만 확인된다(도면 23, 5). 문길이 2개이며 가운데에 정면 9칸, 측면 6칸의 초석이 있는 높은 기단이 위치한다. 가운데 누각 기단과 좌우의 문돈은 모두 높이가 약 5.2m로 동일하다. 초루식성문+누각+초루식성문으로 된 이문(二門) 삼루일체형(三樓一體形)의 성문구조라고 할 수 있다.

누문식 성문은 상경성 내성 황성 정문과 팔련성 내성 남문에서 확인된다. 서고성 내성 남문지도 이 형식에 속할 것이다. 상경성 내성 황성 정문은 기단의 높이가 0.65m이며, 3개의 문길 사이로 격장이 시설되어 있다. 팔련성 내성 남문지는 기단의 잔존 높이가 0.6~0.8m이며, 기단 위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적심이 남아있다. 상경성 내성 황성 정문과 팔련성 내성 남문에서는 3개씩의 문길이 확인되었다. 서고성 내성 남문지는 기단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문길이 가운데로 하나만 확인되었지만 원래는 3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경성 내성 황성 정문의 누문식 성문은 문길 사이로 격장이 있다는 점에서 서고성 및 팔련성 내성 남문지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누문절충식 성문은 팔련성 외성 남문지에서 확인된다. 이곳에는 기둥자리라고 생각되는

원형의 '경토(硬土)'가 문길과 그 좌우 성벽 위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문길의 바닥에도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평면에 속하며, 또 성문구조물이 성벽선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동일선상형식에 속한다.

서고성 외성 북문지는 훼손이 매우 심한 상태이지만 문돈이나 건물기단이 없고 또 문지 기초 구덩이가 성벽선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팔련성 외성 남문지와 동일한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의 후기도성인 안학궁성에서는 성문 6개소에 대한 발굴조사 자료가 모두 확인되지만 평양성에서는 성문이 아직 발굴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안학궁성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원형기초, 연결기초, 원형연결결합형 기초라는 3개 형식의 성문이 확인되었다. 남벽의 3개 문지(남문, 남동문, 남서문)와 동벽의 문지(동문)에서 확인된 원형기초를 가진 성문은 지면에 놓은 초석위에 기둥을 세운 누각을 만들고 기둥들 사이에 문길을 만든 누문식 성문으로 복원된다. 이 성문들은 모두 측면 2칸으로서 내외의 선이 성벽의 내외선보다 양쪽으로 모두 돌출한 양면돌출형식에 해당된다. 문길의 개수는 알 수가 없지만 정면 7칸인 남문과 남동문은 7개까지, 정면 6칸인 남서문은 6개까지, 정면 5칸인 동문은 5개까지 각각 가능할 것이다. 누문식 성문의 예는 약수리고분과 용강큰무덤 등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확인된다.

북문지에서만 확인된 연결기초 성문은 문돈문식 성문, 다시 말해서 초루식 성문으로 복원될 것이다. 연결기초 성문에서 좌우의 폭이 넓은 것은 기본적으로 문돈으로, 가운데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것은 격벽으로 각각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안학궁성 북벽의 성문은 문길이 3개인 초루식 성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성문 역시 양면돌출형식이다.

안학궁성의 서문지에서는 원형연결결합식 성문구조가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좌우의 연결기초는 성벽과 교차하는 방향이 아니라 평행하는 방향으로 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성문은 기본적으로 누문식이거나 아니면 누문절충식 둘 중의 한 형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분명하지는 못하다.

평양성에서는 외성, 중성, 내성(=궁성), 북성에서 모두 16개소의 성문과 동암문 등 수개의 암문이 확인된다. 하지만 아직 이 성문들 중에서 발굴조사가 된 것은 보고된 것이 없다. 때문에 성문의 구체적인 형식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다만 평양성의 성문 구조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있다. 외성 북문인 선요문에서 고구려 와편들과 막새가 깔려 있었고, 중성 정남문이 정양문에서 문다락 건물에 사용되었던 고구려 때의 주춧돌이 발견되었으며, 중성 서문인 보통문에서 주춧돌과 축대의 성돌들이 확인되었고, 내성의 대동문에서 다락건물에 쓰인 주춧돌과 축

대에 쓰인 성돌 그리고 고구려 와편들이 발견되었고, 내성 서문인 정해문에서는 고구려 때에 주춧돌과 고구려 와편들이 발견되었다. 이 사실은 평양성의 성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보여 준다. 첫 번째는 평양성 성문에 기와를 얹은 지붕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두 번째는 적어도 중성 정남문인 정양문과 내성 동벽 남문인 대동문에서는 다락문에 사용된 주춧돌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초루식의 성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고구려 이후시기에 복원된 평양성의 성문들은 다수가 초루식으로 확인된다. 내성 북문인 칠성문, 북성 북문인 현무문, 북성 남문인 전금문이 그러하고, 내성 동벽 남문인 대동문과 내성 서문인 보통문이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성문 위에 누각이 없이 단순한 홍예문 형식을 가진 것들도 함께 보인다. 송암미술관 및 육군박물관 소장 평양기성도에는 묘사된 다경문(=수덕문)이 그러하고, 내성의 동암문이 그러하다.

고구려 평양성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적지 않게 수축을 하였기 때문에 성문의 형식도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초루식으로 추정되는 성문들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 때에도 초루식 성문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초루식 성문에서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이 홍예형(虹霓形)이었는지 아니면 평거형(平据形)이었는지는 추정하기 힘들다.

그 외에도 고구려 평양성에는 누문절충식 성문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내성 모란봉 문터는 평양성을 두른 성벽에 난 문은 아니지만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평양성의 고구려 시기 성문의 구조형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터는 남북 길이가 7m, 동서 너비가 4.8m이며, 바닥에는 판돌을 깔았고, 좌우 측면에는 벽에 잇대어 0.55m 간격을 두고 돌확들을 배치하고 그 위로 나무기둥을 세웠다. 좌우의 문확돌에는 앞쪽으로 문지방이 걸쳐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문지방목 두 곳에는 수레바퀴가 지날 수 있게 홈을 파 놓았다. 두 홈 사이의 간격은 1.45m이고, 각 홈의 폭은 28cm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문길의 좌우 양쪽 벽에 잇대어 세운 나무기둥들이다. 현재 도면상에서는 문확돌을 제외하고 안쪽에 6개 바깥쪽에 3개 등 한쪽 면에 모두 9개의 돌확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이 기둥들이 성문 위의 건물구조물을 지탱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바닥돌 위로 고구려 기와들이 발견된 것을 보면 이 문 위에는 누각이 있었을 것이다. 이 누각은 성벽에도 일부 걸쳐져 있었을 것인데, 이 사실은 이 문이 누문절충식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구려 시기 평양성에서는 적어도 누문절충식 성문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록 평양성에서 초루식과 누문절충식 등 몇 가지 형식의 성문구조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발해도성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아직은 힘들다. 왜냐하면 고구려 평양성에

는 고구려 시기 성문의 구조를 보여주는 발굴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 상경성과 서고성 등에 보이는 초루식 성문이 고구려 평양성에서도 추정된다는 사실은 발해의 초루식 성문이 고구려에서 기원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발해도성의 성문형식은 안학궁성과 더 잘 비교된다. 안학궁성에서는 초루식과 누문식 성문이 분명하게 확인되었고, 또 누문절충식의 가능성이 있는 성문도 있다. 초루식 성문으로만 된 성문은 발해 상경성의 궁성 북문지와 안학궁성의 북문지에서 각각 확인된다. 발해 상경성 궁성과 안학궁성에서 각각 북문지에서 동일형 형식의 초루식 성문이 확인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다만 발해 상경성 북문에는 문길이 2개이고, 안학궁성 북문에는 문길이 3개로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은 상경성 궁성에는 북쪽으로 다시 외성의 북문이 문길이 3개로서 따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상경성의 외성 남벽 동문, 북벽 11호문, 궁성 남벽 서문(3호문), 서고성의 외성 남문은 모두 문길이 1개인 초루식 성문이다. 참고로 문길이 1개인 초루식 성문은 고구려 평양성의 성문들에서 추정되고 있다. 그 외에도 상경성에는 초루식 성문이 3개 중복된 것(외성 남벽 정문), 초루식 성문과 누문식 성문이 결합된 것(외성 북벽 정문), 초루식 성문과 누각건물이 결합된 것(궁성 남벽 정문)도 있다.

누문식 성문은 상경성의 내성 황성 정문과 서고성의 내성 남문 그리고 팔련성의 내성 남문에서 확인되었다. 안학궁성의 원형기초를 가진 성문 4개소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

누문절충식 성문은 팔련성의 외성 남문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었고, 서고성의 외성 북문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형식의 성문은 안학궁성에서는 서문이 가능성이 있고, 평양성에도 가능성은 있지만 안학궁성과 평양성의 경우에는 모두 추정만 되고 있어 아직은 발해의 누문절충식 성문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다만 발해 상경성에는 초루식과 누문식이 결합된 삼문일체형 혹은 이문삼루일체형 등의 성문구조가 있어 발해에만 특징적인 성문형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발해도성(상경성, 서고성, 팔련성)과 고구려 후기 도성(안학궁성, 평양성)의 성문형식에 대해 검토 및 비교해 보았다. 발굴조사가 되었고 그리고 보고내용이 확인되는 성문은 발해도성의 경우에는 상경성 외성 남벽 정문과 동문, 북벽 정문과 11호문, 내성 황성 정문, 궁성 남벽 정문과 서문(3호문), 북문, 서고성 외성 남문과 북문, 내성 남문, 팔련성 외성 남문과 내성 남문이 있다. 고구려 후기 도성의 경우에는 안학궁성의 남벽 3개

성문, 동문, 북문, 서문 등 6개 성문이 모두 확인된다. 하지만 고구려 평양성의 경우에는 성문이 발굴 조사되어 보고된 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성문의 구조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자료들만 그것도 미약하게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발해와 고구려 후기 도성에서는 초루식과 누문식의 성문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그 외에 누문절충식 성문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발해도성에 특징적인 초루식과 누문식 성문은 중국의 수당대보다 앞선 고구려 시기부터 이미 그 사용 예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당보다는 고구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발해 상경성에는 초루식과 누문식이 결합된 삼문일체형 혹은 이문삼루일체형 등의 성문구조가 있어 발해에만 특징적인 성문형식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고구려 평양성 성문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발해와 고구려의 성문형식에 대해 더 많은 공통적인 내용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손영식, 2011, 『한국의 성곽』(증보판), 주류성.
-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고구려편 1), 도서출판 민족문화.
- 전제현, 1998, 「안학궁유적에 대한 연구」 『안학궁유적과 일본에 있는 고구려 관계 유적 유물』, 백산자료원.
- 정석배, 2018, 「발해도성의 성문형식에 대해」, 『발해성지학술연토회』, 길림대학교 변강고고연구중심.
-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녕안 동경성 상경 룡천부 유적」,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 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 최희림, 1978,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西古城 - 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07.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吉林和龍西古城城址 2007~2009年發掘簡報」 『文物』 第12期, 2016.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八連城 - 2004~2009年度渤海國東京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14.
- 王培新·梁會麗·張文立·李今錫, 2009, 「吉林琿春市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 『考古』 第6期.
- 魏存成, 2008, 『渤海考古』, 文物出版社.
- 趙虹光, 2012, 『渤海上京城考古』, 科學出版社.
- 朱國忱·朱威, 2002, 『渤海遺蹟』, 文物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六頂山與渤海鎮』,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9, 『渤海上京城 -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文物出版社.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牡丹江市文物管理站, 1999, 「渤海國上京龍泉府遺址1997年考古發掘收穫」, 『北方文物』, 第4期.

朝鮮古蹟研究會, 『昭和12年度古蹟調查報告』, 1938(소화13년).